

제목: 누리소통망에 악플을 달지 맙시다.

서론: 지난 6월 유명 감독 신씨가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번개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동료 감독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처럼 악플은 한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수도 있습니다.

본론:

근거1: 첫째, 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다. 『정보통신망법』 제70조제2항의 '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'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. (근거1: 72조)

근거2: 둘째, 한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수도 있다. 지난 2019년 유명가수 A씨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. A씨는 평소부터 악플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. 이처럼 악플은 한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수도 있다. (근거2: 44원키, KBS)

결론:

이처럼 악플은 한사람에게 상처를 줄수도 있고, 한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수도 있습니다.

누리소통망에 악플을 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. 누리소통망에 악플을 달지 맙시다.

